



가족: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장 감미로운 결합

“참으로 감미로운 단합과 행복이 우리의 집 안에 충만했다.
어떤 불일치나 불화도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과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었다.”(루시 맥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43년이 되었을 때, 비록 나부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교리를 발표했으며, 한 무리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성전 엔다우먼트를 집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성스러운 성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1843년 5월 16일, 선지자는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라무스까지 여행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절친한 친구인 벤자민 에프 존슨의 집에 머물렀다. 그날 저녁, 그는 존슨 형제와 존슨 자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이 성약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얻는 데 필요한 “신권의 반차”라고 설명했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그는 또한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지 않는 한 “그들은 죽은 후에 증식을 그치게 될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활 후에 아무 자녀도 가질 수 없”고 반면 이 성약을 맺고 계속해서 충실한 자들은 “해의 왕국에서 자녀를 두며 계속 증식하게 될 것”¹이라고 가르쳤다.

두 달 후인 1843년 7월 12일, 선지자는 자신의 붉은 벽돌 상점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윌리엄 클레이튼에게 영원한 결혼 성약에 대한 계시를 받아 적게 했다.(교리와 성약 132편 참조) 선지자는 이 교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몇 달 전에 가르친 바 있었다.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되지 않으면 “그들은 커질 수 없고 모든 영원에 걸쳐 승영함이 없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선언했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다.”

이 구원 받은 상태로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되나니,”(교리와 성약 132:15~18 참조)라고 선언하였다. 승영을 얻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신권의 권능으로 인봉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 나의 종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현세에서나 모든 영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 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가서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때 그들은 만물 위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2:19~21)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난 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다.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조셉 스미스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해 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사랑의 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조셉에게서 배웠다. 조셉은 나에게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토록 증진할 수 있으며, 영원한 결합의 결과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 나는 전에도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낮은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들어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 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한다. … 요약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제 그러한 정신과 이해로써 사랑할 수 있다.”²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남편과 아내는 사랑, 친절, 그리고 애정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서로를 존중한다.

“결혼은 하늘에서 제정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³

“남편의 의무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부양하며, 그녀 이외의 다른 누구와도 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2 참조) 그는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존중해야 하고 그녀의 감정을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일에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마련된 그의 살이요 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모든 불평을 거침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그녀는 기꺼이 남편의 짐을 나누어 지려 할 것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남성의 자리는 자신의 가족에서 가장이 되는 것이지 ... 폭군과 같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나 자기가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거나 경계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의무는 자신의 가족의 교화와 구원을 위해 경전과 계시와 높은 곳으로부터 필요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하나님의 사람이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이 되는 것입니다.”⁴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남편의 행위를 탓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여러분의 순수함, 친절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것이 목에 매달린 맷돌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싸움, 다툼, 충돌이 아닌 온유, 사랑, 순결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선한 사람들의 눈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

“... 남자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나 근심과 어려운 일로 고통 받을 때 여러분이 논쟁이나 불평 대신 온화한 마음으로 위로한다면, 그의 영혼은 고요해지고 감정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지려 할 때, 애정과 친절을 겸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이 집으로 가지거든 결코 남편에게 화내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친절과 자애와 사랑으로 하십시오.”⁵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보고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이 항상 신앙과 기도에 열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명하신 남편들을 신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⁶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고 평생토록
그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그들을 존경한다.**

1835년 10월 중 며칠 동안, 선지자는 몹시 편찮았던 부친을 매일 방문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선지자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늘도 아버지를 간호했다. 아버지는 몹시 편찮으시다. 아침에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좋아, 네 아버지는 살 것이니라.’ 나는 오늘 하루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지지와 조연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간호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통해 가장 유익한 권고를 해 주신다. 저녁 나절에 데이비드 휘트머 형제님이 오셨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병을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우리의 연로하신 아버지는 일어나셨으며 스스로 옷을 입고, 큰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셨다.”⁷

“내 어머니는 영혼이 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축복 받으신 분이다.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며, 가족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영생을 얻으실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와 함께하실 것이며, 자녀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실 아버지는 축복 받으신 것이다. 아버지의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볼 때, 그분의 가지는 많은 열매로 처질 것이며, 그분 또한 높은 곳에서 거할 곳을 소유하실 것이다.”⁸

“나는 어렸을 때의 장면들을 기억한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다. … 그분은 고결하고, 거룩하고, 높고, 유덕한 마음을 지닌 고귀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분의 영혼은 인간들의 마음에 가득한 비열하고 비굴한 원리들을 초월하여 계셨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은 결코 돌아가시면서 도량이 좁은 비열한 행



조셉 스미스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이 그림은 스미스 가족이 뉴욕 주 팔마이러로 이주한 뒤 1816년에 그들의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등을 하신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을 사랑한다. 그분의 숭고한 행위들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내 생각을 채우며, 그분이 내게 해 주신 많은 친절함 말씀은 내 마음의 서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 생애의 이야기는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며, 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고, 내가 태어난 후로 나의 관찰을 통해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분이 묻혀 티끌이 된 곳은 나에게 신성한 곳이다. 그분의 머리 위로 내가 세운 무덤은 나에게 신성한 곳이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영원히 살아 있기를 바

란다. ...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살피시고, 나를 이곳에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내 손을 잡으셔서 내가 시온 산의 구원자로 서서 나의 부친과 더불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토록 훌륭하신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말로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나의 어머니 또한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의 날들을 오래토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서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⁹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 애쓰신 것과 쉬지 않고 일하신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병든 시기에 아기 침대나 침대 옆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슬픔과 걱정으로 보내셨는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연로한 뒤 그들의 감정을 얼마나 잘 보살펴 드려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분들에게 흰 머리를 슬퍼하며 무덤으로 가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추억이 될 수 없을 것이다.”¹⁰

형제자매 간의 사랑은 감미롭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젊었을 때 죽은 두 형제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의 큰 형 엘빈-나는 형이 숨졌을 때 내 어린 가슴에 가득 차 어린 심장을 터뜨려 버릴 것만 같던 슬픔과 번민을 잊을 수가 없다. 형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만이였으며 가장 훌륭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아들 중 한 사람이었다. ... 그에게는 간교함이 없었다. ... 그는 어렸을 때부터 흠없이 살았다. ... 그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으며,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했다. ...

“나의 동생 돈 칼로스 스미스 ... 또한 고귀한 소년이었다. 그에게서는 결코 결점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불경스럽거나 저속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마음씨 곱고 유덕하며, 충실하고 끈은 소년이었다. 그의 영혼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¹¹

조셉 스미스는 그의 형 하이럼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의 사랑하는 하이럼 형, 나는 형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늘

형을 기억하고 있으며, 사람들이나 악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을 지켜 주시도록 간구하고 … 하나님께서 형을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¹²

선지자는 하이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모든 형제들이 사랑하는 형 하이럼처럼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한다. 그는 어린 양의 온순함과 옴의 충실함,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¹³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온다.

1823년 9월에 쿠모라 산을 방문한 후,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그 후로 겪은 경험에 대해 계속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선지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가족보다도 가장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두 둘러앉아 [열일곱] 살 된 소년이 전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할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보다 더 명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무언가를 밝혀 주시려 하신다고 확신했다. 이에 우리는 크게 기뻐했다. 참으로 감미로운 화합과 행복이 우리 집 안에 충만했다. 어떤 불일치나 불화도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과 평온함을 방해할 수 없었다.”¹⁴

1834년 6월에 있었던 시온 진영의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콜레라로 고통을 겪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이 경험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난 하이럼과 조셉의 … 기쁨은 그들이 서로 떠나 있던 동안 겪었던 위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내 양쪽에 앉았으며, 조셉은 나의 한쪽 손을 잡고 하이럼은 다른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그 질병은 즉시 우리를 덮쳤고,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는 큰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 신호를 보냈으며 집을 떠나 특정한 장소에 모여 다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 끔찍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해 받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채 가기도 전에 두 발



루시 맥 스미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두 둘러앉아 [열일곱] 살 된 소년이 전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로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고,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진 서부의 이 광야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거나 이별의 말 한 마디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하이럼 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셉, 어떡하지? 이 무서운 저주를 받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가?” [조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갑작스러운 질병과 재난을 없애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사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

“우리는 곧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누구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간증을 갖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안 되어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곧 질병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하이럼 형이 별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셉,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방금 시현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사과 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 어머니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시단다. 그리고 영이 나에게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증언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병은 나았으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조셉이 말했다. ‘오, 어머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는 몇 번이나 우리를 도와 주는 방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¹⁵

아들들에 대한 루시 맥 스미스의 사랑은 1838년 11월 수감자로서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다시 리치몬드로 이송되어 투옥된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에 대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가족은 하이럼과 조셉이 살해될 것을 두려워했다. “우리 아들들이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은 우리가 살아서 다시 아들들을 보고 싶다면,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떠난 지 아직 몇 분 되지 않았으니 그들을 쫓아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몸이 너무 아파 갈 수가 없었고, 가족 중에 건강한 사람은 나와 루시[딸]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만 출발했다.

“우리가 마차에서 약 36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갔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하고 내가 외쳤다. ‘누가 나 좀 이 군중을 헤치고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들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한 사람이 자진해서 군인들 틈에 길을 열어 주었으며, 우리는 검과, 소총, 권총과 총검 사이를 지나, 매 걸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마침내 아들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나를 따라온 사람이 앞에 앉아 있던 하이럼에게, 어머니가 와 계시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었다. 하이럼은 그렇게 했으나, 나는 아들들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차가 두꺼운 천으로 둘

러쳐지고 앞까지 튼튼하게 묶여 있었으며 옆에는 못을 단단히 박아 놓았기 때문이었다. …

“그러자 나를 데려온 사람이 조셉이 앉아 있던 마차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에 게 이렇게 말했다. ‘스미스 씨, 당신 어머니와 누이가 여기 와 있는데 당신 손을 만지고 싶어하시오.’ 조셉은 마차의 포장과 널판지 끝에 못을 박아 놓은 사이로 그의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를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얘, 조셉아, 이 가련한 에미에게 한마디만 해 다오. 나는 네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총살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시가 그의 손에 누이의 마지막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마부의 고탈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는 아들들을 우리에게서 떼어 놓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겨우 몸을 지탱할 정도였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 우리는 당시 조셉과 하이럼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집에서는 한숨과 신음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슬픔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위안을 능가하는 위로를 발견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으며 예언의 은사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에 위안을 받으라.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울지 마라. 폭도들은 조셉과 하이럼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려 주셨단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우리는 그 후로 그들이 잡혀 간 것에 대해 그리 낙담하지 않았다.”¹⁶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영원한 결혼에 대한 교리를 알게 된 것이 어떻게 팔리 피 프렛의 삶에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가 설명한 내용을 복습한다.(481쪽) 이 교리는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가진 느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권고를 읽는다.(482~483쪽) 이 권고 중 일부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계시를 받는 것은 왜 중요한가? 아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볼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 남편과 아내 모두 “화를 내거나 불친절한 말”을 피해야 하는가?
- 성인이 되었을 때 선지자 조셉은 계속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들의 권고를 구하고 그들을 존경했다.(483~485쪽) 그의 부모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 중 여러분에게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았는가? 여러분이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선지자가 자신의 형 앨빈, 동생 칼로스, 그리고 형 하이럼에 대해 한 말을 복습한다.(485~485쪽) 여러분은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것처럼 오래 지속되고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모는 아들과 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형제자매는 서로에 대한 우정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아들 조셉이 가족을 가르쳤던 것에 대한 루시 맥 스미스의 회고를 복습한다.(486쪽) 가족과 더불어 느낀 “화합과 행복”에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가? 부모들은 콜레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조셉과 하이럼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486~488쪽)

관련 성구: 출애굽기 20:12; 고린도전서 11:11; 에베소서 6:1~4; 모사이야서 4:14~15; 모세서 3:18, 21~24

주

1. *History of the Church*, 5:391; 1843년 5월 16일,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에서: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2. 팔리 피 프랫,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Parley P. Pratt Jr.(1938년), 297~298쪽; 단락 구분 변경.
3. *History of the Church*, 2:320;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5년 11월 24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4. "On the Duty of Husband and Wife," *Elders' Journal*에 게재된 사설, 1838년 8월, 61쪽;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5. *History of the Church*, 4:605~607; 현대화된 철자법;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6. *History of the Church*, 4:604;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7. *History of the Church*, 2:289;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5년 10월 8, 11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8. *History of the Church*, 1:466;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3년 12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9. *History of the Church*, 5:125~126;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42년 8월 23일, 일리노이 주 나부 근처; 이 내용은 *History of the Church*에 1842년 8월 22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10. *History of the Church*, 2:342;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5년 12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1. *History of the Church*, 5:126~127;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42년 8월 23일, 일리노이 주 나부 근처; 이 내용은 *History of the Church*에 1842년 8월 22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12. 조셉 스미스가 하이럼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31년 3월 31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Joseph Smith, Collection,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3. *History of the Church*, 2:338;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5년 12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4. 루시 맥 스미스,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원고, 제4권, 1쪽, 교회 기록 보관소.
15. 루시 맥 스미스,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원고, 제13권, 12~14쪽, 교회 기록 보관소.
16. 루시 맥 스미스,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원고, 제16권, 3~6쪽, 교회 기록 보관소.